

##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1953~1970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 시기를 중심으로

이종겸\*.정현주\*\*.김희정\*\*\*

본 연구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에 주목해 그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되었으며, 김일성 체제의 권력 확보 및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과거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미화 사업은 독점 권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개했고, 소비에트 도시미화의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 평양의 도시미화도 그러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주체적인 성격(민족성, 창조성)을 드러내며 독자성을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실제 평양 도시미화 담론은 권력투쟁 사건들과 반대 세력 숙청 과정에서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 수사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데올로기적 건축 미학은 끊임없이 강변되었고 단조로운 경관을 생산했다. 김일성체제하 평양은 도시환경 개선과 같은 근대 도시미화운동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발휘되지 못했던 반면, 통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도시미화가 활용되었다.

주제어: 도시미화, 담론, 권력, 통치성, 사회주의 도시, 북한 도시, 평양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수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환경계획연구소 겸무연구원),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 북한학 석사.

## 1. 서론

김일성 주석(이하 최고지도자 직책 생략)은 1945년 11월부터 평양시를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sup> 평양시를 아름답고 웅장하고 현대적인 수도로 재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후대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계승되어 비슷한 담화로 재생되어 왔다. 김정일은 “수도의 웅장성과 화려성”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수도”로서 평양시의 미화를 강조하며 ‘화려한’ 가로 주택들을 건설했다.<sup>2)</sup> 이처럼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평양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한 강한 열망을 보였다.

1920~40년대 유럽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 권력 아래에서 도시미화<sup>3)</sup>가 전성기를 맞은 바 있다.<sup>4)</sup> 절대권력과 체제를 상징하고 칭송하는 방식으로 미화된 도시경관이 독점적 권력에 의해 생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도시미화 사업은 권력의 유지, 강화와 관련되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체주의적 관점이 가진

- 
- 1)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11쪽.
  - 2) 김정일, 『건축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52쪽;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9일.
  - 3) 도시미화는 학술적으로 건축물의 파사드(입면)와 경관의 시각적 미학을 중시한 도시계획의 한 사조를 의미한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환경미화의 의미와 구별을 요한다.
  - 4) Peter Hall,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ince 1880*(WS: Wiley-Blackwell, 2014), pp.227~236; 스피로 코스토프(Spiro Kostof),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양윤재 옮김(서울: 공간사, 2009), 217쪽 참조. 서구 도시미화의 역사는 본 연구의 2장 1절 참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북한을 역사적이고 비교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곤 했다.<sup>5)</sup> 따라서 평양의 도시미화를 권력과 의 관계에서 살펴보되 도시미화의 계보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양시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의 도시미화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많이 부족했다. 사회주의 도시연구에서 건축 양식과 그것의 국가 간 유사성은 그동안 깊이 연구되지 못한 분야 중 하나였으며,<sup>6)</sup> 평양시 공간 연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지만 토지이용에 초점을 맞춘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입각한 경우가 많았다.<sup>7)</sup> 하지만 ‘사회주의 도시’ 테제는 ‘평등’이라는 추상적 목표 외에 구체적인 공통점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으며,<sup>8)</sup> 그만큼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기반한 북한 도시 분석은 그 개념적 적확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평양의 전시적, ‘극장무대’<sup>9)</sup>적

- 
- 5)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4); 홍민,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정치비평』, 제10권(2003) 참조. 이 논의는 1990년대 제기된 북한연구 접근법에 관한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 6) 남영호, 『변방에서 문화로: 소련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성격』(서울: 라움, 2017), 75쪽.
- 7) 그러한 연구로서 대표적으로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는 소련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시계획 개념에서 북한 도시를 분석했다.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서울: 효형출판사, 2012)는 평양 도시미화의 주요소인 상징성과 녹지화를 읽어 냈지만 사회주의 도시 개념과 토지이용 분포에 주로 집중했다.
- 8) R. A. French, and F. E. Hamilton, “Is There Socialist City?” *The Socialist City: 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79), p.6;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북한도시사연구팀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파주: 한울, 2013), 31~33쪽; 남영호, 『변방에서 문화로: 소련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성격』 참조.

성격을 고려하면 도시 경관과 건축양식 등 도시미화적 차원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평양시의 전시성에 대한 동의는 암묵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 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평양의 도시미화 혹은 경관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평양시 경관을 통치 이슈와 관련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0)</sup>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북한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며, 근대 도시계획의 사조로서 도시미화의 개념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미화의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평양의 경우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하며, 평양의 도시미화를 추동한 의도와 방법(담론과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미화가 갖는 권력적, 통치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자신의 권력/체제를 강화

---

9) ‘극장국가’라는 개념은 19세기 발리왕국을 연구한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정치인류학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클리퍼드 기어츠, 『극장국가 느라가』, 김용진 옮김(서울, 눌민: 2017). 평양시 공간을 극장국가의 무대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전상인 외, “국가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도시계획』, 제50권 1호(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이 있는데, 이 연구는 도시미화 혹은 전시적 공간에 다루기보다는 평양시의 의례와 공간 행태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10) 김정은 시기 평양 도시미화사업을 다룬 연구로 정일영,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에 관한 연구: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신진 연구 논문집: 2015 북한 및 통일관련』(서울: 통일부, 2015), 평양시 경관에 관한 연구로 김성경, “평양 도시 건설 스펙터클에 관한 소고,” 『개념과 소통』, 제24호(2004); 안진희, “『로동신문』 현지지도 사진을 통한 북한 경관의 시각체계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홍민,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서울: 통일연구원, 2017) 등이 있다. 그 밖에 평양 도시미화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로서 평양 건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권력과 통치의 차원을 다루지 않는다.

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평양의 도시미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했는지 그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우선 서구 근대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영한 도시미화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 논하고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의 분석 범위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2장).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전후 재건 시기 사회주의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고(3장), 1950년대 중반 이후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전개와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성립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4장).

## 2. 도시미화의 역사적 배경과 연구방법

### 1) 도시미화의 역사와 개념

근대 도시미화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이라고 명명되면서 사회와 자본의 역동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전통적 모델은 파리와 빈 같은 19세기 유럽의 수도에서 생겨났으나 이러한 흐름은 미국으로 건너가 근대적 도시계획의 사조로서 전개되었다.<sup>11)</sup> 그 배경에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혁신주의와 도시예술운동이 결합된 당시 미국 사회의 특성이 존재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도시미화 양식과 그 영향으로 탄생한 시카고 도시계획안은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로 전파되었다. 도

---

11) 박진빈, 『백색국가 건설사』(서울: 엘피, 2006), 69~86쪽; Peter Hall, *Cities of Tomorrow*, pp.203~212.

<그림 1> 동독 스탈린로(1950년대)



자료: 스피로 코스토프,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225쪽.

시미화운동은 오스망식 공간구조와<sup>12)</sup> 바로크 건축양식, 정원 조성, 슬럼 철거 등 물리적 특징과 함께 지역 민간자본에서 동력을 얻어 추진된 종합계획이라는 특징이 있다.<sup>13)</sup>

하지만 도시미화운동이 유럽으로 회귀했을 때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과정(‘운동’의 측면)은 배제된 채 독점적 권력과 친화력을 보이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다.<sup>14)</sup> 히틀러는

---

12) 오스망 남작(Baron G. Haussmann, 1809년 3월 27일~1891년 1월 11일)은 파리시장으로서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3세가 지시한 파리 대개조사업을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오스망식 공간구조는 상징적 건축물을 중심으로 샹젤리제와 같이 직선으로 뻗어 나간 대로와 구획정리에 의해 정돈된 필지와 도로, 기념비 건축, 4~5층의 주택가 등을 특징으로 한다. 김철수, “절대주의 바로크의 도시 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위음, 『서양도시계획사』(서울: 보성각, 2004), 182쪽 참고.

13) 도시미화운동은 그 혜택이 주로 백인 자본가들에게 돌아가 ‘백색도시’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근대 도시계획과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William H. Wilson, *The City Beautiful Movement*(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14) Peter Hall, *Cities of Tomorrow*, pp.227~235.

도시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베를린과 베를린 외곽은 대로(boulevard)와 대로변 주택단지, 기념비적 상징물 등으로 계획되었다. 히틀러의 계획들은 상당 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도시미화 사업 대부분을 완성시켰다. 엄격한 도시계획이 표현된 1930년대 모스크바는 건축적 통일성과 조화가 강조되었고, 히틀러의 베를린과 유사한 물리적 특징을 통해 국가적 위상과 지도자의 권력을 표현하는 도시미화의 전형으로서 재건되었다.

스탈린의 도시미화 유산은,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5)</sup> 동독에서는 히틀러 시기 베를린 시내의 미완성된 도시미화 가로가 정비되어 ‘스탈린로(Stalinallee)’(〈그림 1〉)로 개명되었으며, 모스크바 기본계획의 도시미화를 적용한 ‘스탈린시(Stalinstadt)’ 계획은 통치 공간으로서 공간축과 기념비가 강조되었다.<sup>16)</sup> 루마니아 차우셰스쿠(N. Ceaușescu’s)의 과도한 비전은 스탈린을 능가했고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를 대로와 기념비, 고층건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역사적 공간을 대체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심축이 된 ‘사회주의 승리대로(Bulevardul Victoria Socialismului)’(〈그림 2〉)는 폭 92m로 건설했고 인민궁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상징 경관이 연출되었다.<sup>17)</sup> 이러한 사회주의 도시미화 사업은 17세기 바로크 건축에서 비롯된 물리적 특징과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

15) *Ibid.*, pp.234~236.

16) Ruth, May, “Planned city Stalinstadt a manifesto of the early German Democratic Republic,” *Planning Perspective*, 18(2003), pp.57~72.

17) Maria De B. U. Cavalcanti, “Urban Reconstruction and Autocratic Regimes-Ceaușescu’s Bucharest in its historic context,” *Planning Perspective*, 12(1997), pp.96~97.

<그림 2> 루마니아 사회주의 승리대로



자료: Maria De B. U. Cavalcanti, "Urban Reconstruction and Autocratic Regimes-Ceausescu's Bucharest in its historic context," p.95.

을 추구하는 심미적 관점들이 계승된 측면이 존재했다.<sup>18)</sup>

모스크바의 건축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권력의 필요에 따라 과거의 양식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한 절충주의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1930년대까지 소비에트에서는 루카치(György Lukács) 등이 주장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니라 당의 지침을 따른 '표준화된 전형'으로서 절대권력에 어울리는 고전주의와 인민들에게 친숙한 민족주의 양식이 절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스탈린이 직접 지휘하고 당이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는 점은 그만큼 모스크바의 도시미화가 권력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효과적인 통치수단이었음을 방증한다. 그 결과 이른바 '스탈린풍(Stalinesque)'의 모스크바 건축이 1960~70년대까지 다른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되풀이되었다.<sup>20)</sup>

18) 스피로 코스토프(Spiro Kostof),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209~278쪽.

19) 김홍순, "사회주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07), 38~39쪽.

20) R. A. French, and F. E. Hamilton, "Is There Socialist City?" pp.14~15.

<표 1> 서구 도시미화의 개념

구분	주체	담론 내용	사업 내용
서구 도시미화운동	정부와 자본, 이익단체	아름다움/예술, 혁신 등	도시환경 개선, 바로크 건축, 정원 조성 등
유럽 사회주의 도시미화	절대권력자, 국가, 당	상징성, 통일성, 다양성 등	통치기관, 기념비, '스탈린풍'/절충주의 건축, 대로, 고층 건물 등

위와 같은 서구의 역사에서 도시미화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서구의 도시미화는 미국에서 전개된 초기 도시미화운동은 민간이 주체로 참여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같은 기술적·정치적 혁신 요소를 포함하면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반면, 이후 등장한 사회주의 도시미화는 독점 권력의 주도하에 도시환경 개선보다는 통치 수단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더욱 중요시되며 상징적·통일적 경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이러한 서구 사회주의 도시미화의 계보 속에서 북한의 도시미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미화의 전성기인 20세기 전반기를 지나 건설되었지만 평양도 세계적 도시미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sup>21)</sup> 북한의 경우도 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최고 권력자와 주요 도시계획가의 저작에서 시각적 아름다움과 웅장함, 통일성/조화성이 우선적인 가치로 표명되었다.<sup>22)</sup> 한편 사회주의 도시건설의 모델이 된 1930년대 모스크바의 개발 과정도 10년 이상의 권력투쟁과 논쟁 속에

21) Jon Lang, "Learning from Twentieth Century Urban Design Paradigms," Robert Freestone(ed.), *Urban Planning in a Changing World*(NY: Routledge, 2000), p.82.

22) 김일성,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도시설계일군들과 한 담화, 1951년 1월 21일)," 『김일성저작집』 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79쪽; 김정희, 『도시건설』(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3).

서 탄생하는 등<sup>23)</sup> 도시미화 과정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에 주목해 본다면, 평양의 도시미화 역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과 함께 해석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전쟁 후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는 1970년까지로 설정했다.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평양은 1953년부터 전면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했으며, 김일성체제 확립과 함께 평양의 재건과 개발이 함께 추진된 시기가 1960년대까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시작되어 담론 생성의 주체와 내용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평양 도시미화의 담론(discourse)<sup>24)</sup>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미화 사업에서 지도자의 담화와 관영매체의 기사들은 강한 영향력을 가진 담론으로 작용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도시미화 담론을 재구성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시미화 담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계획과 경관, 건축양식을 담론과의 비교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평양 도시미화 담론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

---

23) 김홍순, “사회주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4) 담론은 사전적으로 하나 이상의 문장이 모인 일련의 문장들을 의미하며 그 철학적 개념은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행위로서 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관계와 이를 분석하는 개념적 도구를 포괄한다. 특히 푸코에 의해 담론은 지식을 ‘진리’로 만드는 권력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언어행위의 개념으로 제기된다. 필립 스미스(Philip Smith),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서울: 이학사, 2008), 211~213쪽.

하고 분석한다. 그동안 북한의 도시미화와 그 담론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이에 관한 고증과 서술이 요구된다. 특히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권력을 확립·강화하는 과정에서 평양 도시미화를 체제의 상징과 선전에 복무하는 기제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이다. 고전사회학적 관점에서 권력의 정당성이 수용되면 지배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지배 주체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얻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sup>25)</sup> 도시 경관을 시각적으로 가독성 있게 만들고자 한 노력은 근대적 통치술의 일환이었다.<sup>26)</sup> 분단 신생국에서 탄생한 김일성체제는 권력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선전하는 기제로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수도의 도시미화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또한 단순한 고증이 아니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 분석을 참고해 도시미화의 담론과 권력의 관계를 짚어내고자 한다. 초기 푸코의 담론 분석방법인 고고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사실과 효과를 ‘과해쳐’ 드러내는 작업이며, 도시미화는 미학적 혹은 공간적 담론 생성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고고학 이후 주장된 계보학은 담론적 사실의 계보를 밝히고 권력과의 관계/얽힘(권력의 정체와 교묘한 전략 등)을 규명하는 방법이다.<sup>28)</sup> 이러한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평

---

25)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1, 박성환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408~409쪽.

26) 제임스 C. 스콧,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김(서울: 예코리브르, 2010), 97~111쪽.

27) 담론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는 언표(statement)들의 응집력 있는 집합체로서 미학과 과학, 의학 등 다양한 지식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서울: 민음사, 2000);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엮음, 『문학비평용어사전』(서울: 국학자료원, 2006), 440쪽.

양시 도시미화 담론의 역사를 주요 권력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김일성의 전집류(『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전집』)와 『로동신문』, 『조선중앙연감』 등을 주요 자료로 삼았다. 김일성 전집류는 도시미화에 관한 최고 지도자의 담론을 직접 드러내는 자료이며, 신문과 연감 자료는 담론뿐만 아니라 도시미화의 계획과 실적, 선전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행된 일간지로서 『로동신문』에 대한 시계열적, 양적 분석도 시도한다. 우선 연구 대상 기간에(1953~70년) 수록된 평양 도시미화와 관련된 기사(김일성 교시, 정론, 현황 보도자료, 정책 자료, 사진, 인상기 등)를 추출하고, 그 빈도수의 추이를 통해 도시미화 담론의 역사적 부침을 파악한다. 추출된 기사의 수는 총 194건이며, 1958년, 1967년 등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게 증가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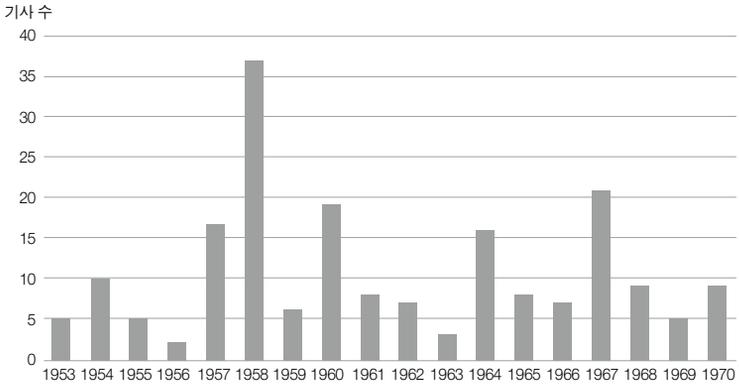
또한 도시미화 담론의 내용분석에 기반한 추이 파악도 가능하다. 내용분석의 요인들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귀납적 방법으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상위개념으로 추상화하는 코딩작업을 수행했다.<sup>29)</sup> 우선 『로동신문』에서 도시미화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소들을 추출해 1차적으로 지표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분류, 분석하여 13개의 중위범주와 최종적으로 5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했다(표 2).<sup>30)</sup> 그리고 전체 연구 범위 기간 중위범주에 속하는 구성

---

28) 이상 푸코의 이론에 관한 인용과 내용은 노먼 페어클롭(Norman Fairclough), 『담론과 사회변화』, 김지홍 옮김(서울: 경진출판, 2015), 95~115쪽;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 이규현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4) 참조.

29) J. W. Creswell,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Boston: Person Education, 2005), pp.405~407 참고.

<그림 3> 평양 도시미화 기사의 빈도 현황(1953~70년)



자료: 『로동신문』, 각 호.

요소들의 빈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그림 4〉, 〈그림 8〉, 〈그림 10〉). 이는 시계열적으로 어떤 도시미화의 내용이 증가,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등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위 범주 중 ‘① 정치 수사적 요소’는 1950년대 초중반부터 북한의 정치적 수사에서 빈번하게 강조되었던 미학적 요소들을, ‘② 기존 사회주의 요소’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미화 요소들을, ‘③ 주체적 요소’는 1950년대 중반 북한 주체사상의 맹아가 등장한 이후 나타난 요소들을, ‘④ 환경개선 요소’는 서구의 근대 도시미화운동에서 두드러졌던 공중보건 및 환경개선을 강조하는 요소들을, ‘⑤ 실용적 요소’는 편리성과 소박함 등 실용적 가치를 지향하는 요소로서 정치수사적 요소와 대별되므로 따로 범주화했다.

30) 본 연구의 저자들이 교차적으로 각 기사들을 2회 이상 검토했다.

<표 2>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의 범주화: 담론의 요소별 내용과 표현

구분	상위 범주	중위 범주	하위 범주(기사의 표현, 내용)
①	정치 수사적 요소*	아름다움	아름다운, 가꾸기, 화려한, 알뜰한, (주요 도로, 거리) 포장, 정리, 변모, 새 모습, 수려한, 황홀한, 훌륭한, 단장, 백화단발 등
		상징성	상징적, 상징축, 기념비, (권력 지향적) 미학, 미관, 근원지, (은유적 표현) '민주수도', '영웅도시', '혁명의 수도', '심장', '궁전', '행복의 요람' 등
		현대성	(정치적으로) 현대적, 근대적, 발전한, 문명적, 선진적, 튼튼, 번영 등
		융합함	융장한, 융대한, 거창한, 큰, 대규모, 위업, 확장, 초고층 등
②	기존 사회주의 요소*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베트', '구라파', '쓰딸린', '모택동' 등
		통일성	통일적, 통일성, 조화로운, 조화성 등
③	주체적 요소	다양성	다양한, 각양각색 등 (통일성으로 인한 단순화를 보완)
		민족성	민족적, 전통적, 조선 민족, '민족의 수도' 등
④	환경개선 요소	창조성	창조적, 창발성, 독창적, 특색 등
		보건·위생	위생방역, 의료봉사, 상하수도·오물장치 설치, 건강증진, 전염병 방지 등
⑤	실용적 요소	원림화	원림, 공원, 수목, (자연환경의) 풍치 등
		편리성	편리, 편의, 봉사, 생활향상, 윤택한 등
		소박함	소박한, 아담한 등

주: \* 북한의 정치 수사적 요소와 유럽의 기존 사회주의 요소들은 중복되거나 뚜렷이 구별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선을 점선 처리했다.

자료: 『로동신문』, 1953~1970년 각 호.

### 3. '사회주의 북한'과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등장(1953~56년)

근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많은 수도들이 상징성을 갖게 되지만, 김일성이 직접 수도의 건설을 지휘한 것은 스탈린과 차우세스쿠에 비견될 만큼 이례적인 사례이다. 1953~56년 기간 북한은 경제복구 발전 3개년계획이 실시되어 폐허로 변한 수도를 복구·건설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직접 평양시 복구위원장직을 맡았고 평양을 수도답게 미화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평양의 도시미화를 강조한 이유는 우선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따른 수도의 중요성 부상과 대남 적화통일 기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해방정국 때부터 평양시를 사실상 수도로 여기고 도시미화 의지를 피력했다. 1948년 그는 남북연석회의가 열릴 북한의 ‘얼굴’ 평양시의 환경미화를 강조했으며 남북연석회의에는 대남 적화통일 기조가 내포되어 있었다.<sup>31)</sup> 전쟁 중 평양 재수복 시기(1951년 1월)에는 전쟁 전보다 더 ‘화려하게’ 건설할 것을 지시했고,<sup>32)</sup> 전후 사회주의 국가의 ‘붉은 수도’이자 대남 선전에 필요한 ‘민주수도’로서 중요성을 가진 평양의 아름다운 재건이 강조되었다.<sup>33)</sup> 이러한 표현들은 이후 여러 공식문헌에서 반복 재생산된다.

이 시기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성을 강조하며 유럽 사회주의 혹은

---

31) 김일성, “평양시를 잘 꾸리자(북조선인민위원회 및 평양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48년 4월 1일),” 『김일성전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406쪽.

32) 김일성은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 작성과 관련한 도시설계가와 담화에서 평양시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건설하여 “전쟁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복구건설” 하자고 강조했고 도시의 중심부와 주요거리의 고층주택과 공원들을 잘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했다. 김일성,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279쪽.

33) 대남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에서는 평양시를 1954년 ‘임시수도’로 규정했고, 1958년에는 ‘민주수도’라 규정했다(최고인민회의,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1권)』(서울: 1988), 675쪽;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한 법령,”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2권)』(서울: 1988), 251쪽. ‘민주수도’, ‘붉은수도’는 이 시기 『로동신문』에서 등장하는 상징적 담론의 표현이다. 민주수도는 대남 적화통일의 기조인 ‘민주기지론’과 관련된다.

스탈린 양식으로의 경도를 차단하는 담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1951년 1월 김일성은 평양의 도심을 올바르게 정해야 하는데 스탈린거리(현재 승리거리)를 더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대신 다른 대로의 건설을 예견한다.<sup>34)</sup> 1954년에는 ‘구라파’ 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민족적 건축을 장려한다.

건축예술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적특성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잘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가운데는 옛날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옛날 것은 다 나쁘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구라파의 것이라면 다 좋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다 옳지 않은 편견입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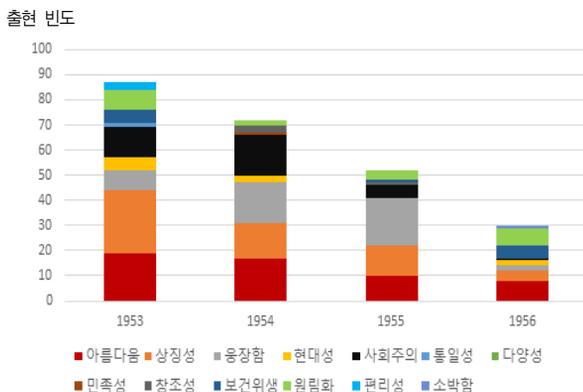
이 시기 『로동신문』 관련 기사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후 복구가 시작된 1953년에 도시미화 담론이 폭증한 이후로 그 빈도가 점차 감소한다(〈그림 4〉). 1953년을 전후로 평양시복구위원회 결정 등 중요 문건들이 신문지상에 발표되면서 도시미화와 관련된 요소도 자주 언급된 결과다. 특히 도시미화 요소 중 1951년부터 김일성이 강조했던 정치 수사적 요소(‘아름다움’, ‘상징성’, ‘웅장함’)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956년에는 다른 요인들과 비등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 요소들은 국가/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상징함으로써 권력 강화와 국가건설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

34) 김일성,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280쪽.

35) 김일성,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전국건축가및건설기술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4년 3월 26일),” 『김일성저작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53~355쪽.

<그림 4>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범주별 현황(1953~56년)



자료: 『로동신문』, 각 호.

그런데 195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 강조했던 ‘민족성’은 실제 도시미화 사업에서 그만큼 반영되지 못한 반면, 스탈린대로와 중앙광장 등 1953~54년의 주요 성과는 유럽 사회주의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스탈린 거리는 도심부 재건을 다룬 초기 평양시 복구계획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로로 계획되고 확장, 포장된다(〈그림 5〉). 정전협정 3일 후인 1953년 7월 31일 ‘쓰딸린 대통로’는 도시의 기본 축인 대동강 축에 병행하며 첫 번째 건설대상으로 계획되었다.<sup>36)</sup> 스탈린대로는 연장 2.5km, 폭 45m로 확장되어 4~5층의 건물군이 배치되며, 대로의 남쪽 끝에는 스탈린 동상 건립이 계획되었다. 다음 날 밝혀진 평양시 1차 복구계획에서는 스탈린대로를 중심으로 한 구역이 시의 중심부이며, 명칭도 ‘쓰딸린 대원수’로부터 유래했다고 밝힌다.<sup>37)</sup> 여기서 평양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25호(1953년 7월 31일)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3년 8월 3일.

37) “평양시 제1차복구계획,” 『로동신문』, 1953년 7월 31일.

<그림 5> 평양 중심부 총계획 모형



주: 강조된 구역과 지명은 필자가 이미지화했다.  
자료: 『로동신문』, 1953년 7월 31일, “평양시 제1차복구계획”.

시는 소비에트식 속성 시공법으로 건설되어 “위대한 쏘련의 선진 기술에 의거한” 대규모 도시라고 선전된다. 후속조치로서 평양시복구위원회 결정 2호(1954년 5월)에서는 스탈린대로와 중앙광장(현재 김일성광장), 역전거리(이후 인민군거리, 영광거리로 개칭) 등지에서 콘크리트 포장과 청사 신축 등의 공사가 계획된다.<sup>38)</sup>

우선 스탈린대로가 평양시 초기 재건과정에서 최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상징적인 대로로서 첫 번째 도시미화 대상으로 계획·건설되었다. 1955년도 스탈린대로의 경관은 도시미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습이고, 유럽 고전주의 건축양식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역전거리도 그 경관을 통해 사회주의적 주택양식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이 파악된다(그림 7). 평양역에서 바라본 역전거리와 ‘레닌거리’, 그리고 이를 따라 5~6층으로 통일된 주택양식, 마르크스와 레닌의 대형초상화가 걸려 있는 경관은 이 당시 평양의 경관이 유럽

38) “평양시 복구위원회 결정 제2호,” 『로동신문』, 1954년 5월 27일.

<그림 6> 스탈린대로의 경관



자료: 『로동신문』, 1955년 8월 6일, “평양시의 새 모습: 스탈린 거리”.

<그림 7> 평양역에서 바라본 인민군거리(1959년)



자료: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2020), 69쪽.

사회주의 도시 혹은 ‘스탈린풍’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닮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 밖에 중앙광장의 종합청사 1호와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등의 공공건축물들도 유럽 고전주의 양식을 보여 준다.<sup>39)</sup> 또한 한국전쟁 혈맹의 상징으로 호명된 모택동 광장과 거리는 스탈린 거리 다음으로 중요한 입지를 점유했다(<그림 5>). 1954년 8월 모택동 광장은 22,000m<sup>2</sup> 면적으로 계획되었다.<sup>40)</sup>

39) 리화선, 『조선건축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36, 150쪽 참고.

40) “평양시 복구위원회 결정 제3호,” 『로동신문』, 1954년 8월 13일; “평양시 복구

이처럼 평양의 도시미화는 김일성의 민족주의 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북한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 중국 등의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했고 이에 김일성 세력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조치는 김일성의 담화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중앙광장’도 당시의 주요 도시계획 대상이었는데(그림 5)), 이 광장의 명칭 변화와 건설 상황을 통해 평양 도시미화 기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광장의 입지는 1951년 결정된 이후 1953년 국가·시급 기관과 주요 건축물들이 계획되고 그 이듬해 중앙광장 양편에 청사 신축 등 그 계획이 구체화되었다.<sup>41)</sup> 그러다가 1954년 8월 ‘김일성광장’으로 호명되며 평양 최종심부에 면적 36,000m<sup>2</sup>의 상징적인 광장으로 확장된다.<sup>42)</sup> 이듬해 2월에는 김일성 광장의 종합청사 2개소와 최고인민회의청사 등이 완공되었다.<sup>43)</sup> 동시에 역전거리도 상징적 의미의 인민군거리로 호명되었다.<sup>44)</sup>

---

위원회 결정 제4호,” 1955년 2월 14일. 또한 만경대 혁명열사 유자녀학원, 평양종합병원, 김책공업대학, 동평양 아파트, 로동신문사 등 당시 평양시의 주요 건축설계에서 중국 건축기술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건축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래조 중의 중국 건축 기술자들 평양시 복구 건설 공사를 적극 협조,” 『로동신문』, 1954년 2월 11일. 이 기사에서 만경대 혁명열사유자녀학원, 평양종합병원, 김책공업대학, 동평양아파트, 로동신문사 등 당시 주요 건축물 설계에서 중국 건축기술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평양 건설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 41) 김일성,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280쪽; 『로동신문』, 1953년 7월 31일; 『로동신문』, 1954년 5월 27일.
- 42) “평양시 복구위원회 결정 제3호,” 『로동신문』, 1954년 8월 13일.
- 43) 『로동신문』, 1955년 2월 14일.
- 44) 영광거리는 1987년 이 거리를 건설한 조선인민군에게 영광이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기초 변화는 민족적 양식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은 주체사상의 맹아가 대두되기 시작한 때였다.<sup>45)</sup> 김일성은 1954년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대회에서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자고 주장하며 유럽 사회주의 양식이 아닌 조선 사람들에게 잘 맞는 민족적 양식을 도입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했다.<sup>46)</sup> 이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온돌방과 같은 전통 양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동적 서사와 연결되며 이것은 주체 확립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논리로 표명된다.<sup>47)</sup> 하지만 민족적 양식이 곧바로 평양시에서 실현되기는 힘든 대외적 환경에 처해 있었고, 주체사상은 아직 확립된 통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평양시 초기 재건과정에 사회주의권의 지원은 매우 중요했으며<sup>48)</sup> 1950년대의 평양 도심부는 ‘스탈린 양식’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이렇듯 1953~56년 기간 평양시의 도시미화는 전후 복구를 김일성이 지휘하는 상황에서 많은 조치들이 계획되었지만 정치·경제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애초에 그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소련과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상징적인 평양의 최종심부에 사용되었으며 스탈린풍의 경관이 주요 공간을 장식하게 되었다. 3개년 경제계

---

명명되었다. 방현봉 외, 『조선지리편람(평양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41쪽.

45) 고유환, “통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위임, 『북한 정치의 이해』(서울: 을유출판사, 2001), 92~93쪽.

46) 김일성,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

47) 이러한 논리와 그 효과는 박용운, 『번영의 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542~548쪽에 잘 표현되어 있다.

48) 박동민, “건축가 김정희와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 신화와 역사,”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호(2018), 137쪽.

획의 실행 결과 평양시 주택건설 성과는 목표치를 상회했고<sup>49)</sup>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광장과 스탈린대로 등의 기본공사가 대체로 마무리되며 평양시복구위원회의 활동도 완료된다.<sup>50)</sup>

#### 4.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과 도시미화 담론의 전개

##### 1) 8월 종파사건과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절정(1957~60년)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만주파 세력은 구소련의 스탈린 비판 분위기를 틈타 그해 8월 전원회의에서 개인숭배 문제와 경제정책에서 이견을 보인 연안계를 숙청했다.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은 권력의 집중화로 정치적 역동성이 제거되는 결과를 낳은 권력투쟁 사건으로서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 형성으로 귀결되었다.<sup>51)</sup> 그 연장선상에서 평양시 인민위원

---

49) 평양시 주택건설 목표는 3개년계획 기간(1954~56년) 총 101만 m<sup>2</sup>에 달했고 실적은 약 180만 m<sup>2</sup>를 기록했다. 최고인민회의,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676쪽;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7』(평양: 1957), 101쪽.

50) 예를 들어 평양시복구위원회 결정 4호는 기존의 중심부(스탈린거리, 인민군거리 등)에서 공사 후 잔토를 처리하고 중심부 외곽 지역(보통문거리, 서평양역전거리, 동평양간선거리 등)에서 주택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로동신문』, 1955년 2월 14일). 그리고 평양시 복구위원회결정 4호 이후 평양시복구위원회의 결정이 등장하지 않으며, 그 존재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후 김일성이 아닌 평양시 복구공사지도위원회(4월 28일 1차회의) 위원장의 담화로 주요 복구건설사업이 소개되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로동신문』, 1957년 5월 1일).

51) 8월 종파사건에 관해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279~284쪽 참고.

회에서 종파분자들이 비판되고 도시미화 사업이 더욱 강조되었다.

1956년 12월 이후 세 번의 전원회의를 통해 연안계 등 반대파가 숙청되고 후속조치가 논의되었는데, 1958년부터<sup>52)</sup> 김일성은 평양시 건설에서 종파분자들의 전문성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건축과 이데올로기적 교양을 강조했다. 조립식 건축과 같은 건설의 공업화를 시기상조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수행한 김승화, 박의완, 서휘 같은 인물들을 숙청되었으며,<sup>53)</sup> 1958년 12월 김일성은 평양시 건설자대회를 개최하고 종파분자들이 조립식 건설을 반대해 주택건설을 방해했다고 지적한다.<sup>54)</sup>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며 당시 도입 초창기였던 조립식 건축의 적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나 검증은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 태도로 비판되었다. 이에 한 달 앞서 김일성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도시경영 부문에서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상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sup>55)</sup> 이듬해에는 시인민위원회 건설 부문에서 조직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직 개편과 책임자 교체를 단행한다.<sup>56)</sup> 종파분

---

52) 종파사건 이후 평양시 건설부문에서 종파분자들이 비판되는데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1956년 연안계 숙청 당시 중국과 소련의 간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53) 박동민, “건축가 김정희와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 136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580~581쪽.

54) “건설에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양시 건설자 대회에서,” 『로동신문』, 1958년 12월 26일.

55) 김일성, “평양시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여 다음해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울데 대하여(1958년 11월 17~18일),” 『김일성전집』 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55~459쪽.

56) 김일성, “평양시 건설사업과 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59년 8월 17일),” 『김일성전집』 2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자들에 대한 비판과 숙청은 평양시 건설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로의 편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종파사건의 두 번째 여파로 1958년부터 평양시 도시미화 사업과 관련해 빠른 노동력 동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평양속도’는 그동안의 결함을 극복해 조속한 건설을 완료하자는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이었고,<sup>57)</sup> 종파세력 비판은 이 캠페인의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그들이 숙청된 1956년 12월 전원회의와 후속 조치 실행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속도전으로 추진되었다. 이듬해 5월 건설사업을 도심부 밖으로 확장시킬 것을 계획했고,<sup>58)</sup> 1958년 2월에는 과거 건설사업의 “낙후성과 보수성,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공의 효율성 제고와 1만 7천여 세대 주택건설, 부재와 생산시설 보장, 증산경쟁운동 등 새로운 평양시 건설 방향이 제시된다.<sup>59)</sup> 그해 7월에는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 데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5만 세대 주택과 대극장, 로동궁전 등의 건설을 계획했다.<sup>60)</sup> 이러

---

57)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557쪽. 평양속도에 의해 “1분에 한세대씩,” 1년 동안 2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했다고 선전된다. 평양속도가 인민의 혁명적 열망을 추동한 정동적 힘에 대해서 김성경, “평양 도시 건설 스펙터클에 관한 소고,” 22~30쪽 참고.

58) 약 40만 m<sup>2</sup>의 스탈린대로, 모택동 거리, 인민군거리와 각종 기관들이 건설되어 위생, 문화사업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주택과 교육·문화·보건·휴식 시설이 필요하다며 다른 구역들에 추가 건설을 계획한다. 『로동신문』, 1957년 5월 1일; 1957년 5월 2일; 1957년 5월 5일.

59) 조선중앙통신사, “내각결정 제17호(1958년 2월 10일): 1958년 평양시 복구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관하여,” 『조선중앙연감 1959』(평양: 1959), 77~78쪽.

60) 조선중앙통신사, “내각결정 제83호(1958년 7월 10일): 평양시를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 데 관하여,” 『조선중앙연감 1959』(평양: 1959), 107~112쪽.

한 대규모 도시미화 사업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평양속도로 동원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

『로동신문』 도시미화 담론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8〉), 1957~58년 기간 정치 수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도시미화 담론이 증가했는데 이는 8월 종파사건 뒤치리와 조속한 평양 재건을 위한 조치들 때문이다. 1959년 담론의 빈도가 감소했다가 1960년에는 제4차 당 대회 준비로 평양시의 미화가 다소 강조된다.

한편 1950년대 초중반 김일성이 강조했던 ‘민족성’은 이 시기 거의 표명되지 않지만, 민족적 양식을 표현한 평양대극장(〈그림 9〉)과 옥류관이 1960년 완공된다.<sup>61)</sup> 이때에 비로소 민족 양식의 건축물이 스탈린대로의 남북 측 양단에 슬며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의 후속조치로 1956~58년 무렵 관련 기사가 폭증했는데, 다른 시기와 비교해 실용적 요소들(‘편리성’과 ‘보건위생, ‘소박함’)도 다소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실용적 내용은 정치수사적 도시미화 요소들과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김일성도 같은 해 주택을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편리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게” 건설해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다.<sup>62)</sup> 『로동신문』 기사들도 조속한 복구·건설을 위해 아담하고 편리한 주택건설을 강조했다. 이는 1958년부터 북한의 주택건설에 조립식 건설과 표준설계가 도입되었던 맥락과 관련이 있다.<sup>63)</sup> 이러한 변화에는 당시 목표치만큼 주택건설 실적이 미치지 못했던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sup>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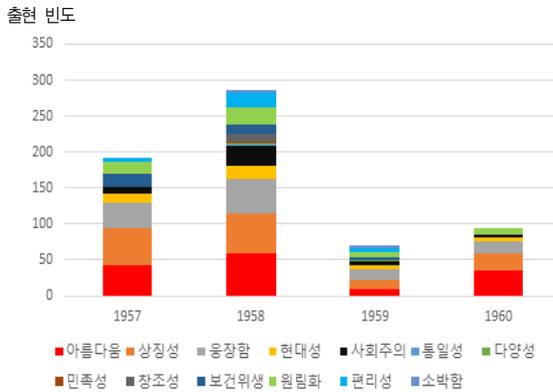
---

61) 평양에서 온전히 민족적 양식으로 지어진 가장 초기의 건축물이 이 두 건물이다. 이왕기, 『북한 건축: 또 하나의 우리 모습』, 59쪽.

62) 『로동신문』, 1958년 12월 26일.

63) 리화선, 『조선건축사』 2, 122~123쪽.

<그림 8>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범주별 현황(1957~60년)



자료: 『로동신문』, 각 호.

<그림 9> 평양대극장



자료: 북한지역정보넷 웹사이트(검색일: 2021년 4월 30일).

64) 김일성은 1차 5개년계획(1957~61년)에서 1960년을 완충기로 설정하면서 1960년의 과업 중 하나로 주택건설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교시했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34쪽. 평양시 주택건설 목표는 1차 5개년계획 기간 264만 m<sup>2</sup>이었지만 3개년계획 기간과 달리 1957년부터 약 47.0만 m<sup>2</sup>으로 다소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한 법령,” 251쪽;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9』, 234쪽.

따라서 1956~60년 기간은 8월 종파사건으로 독점적 권력이 확립되기 시작하고 평양 도시미화에서 김일성의 의도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시 재건에서 정치 수사적 도시미화 담론이 여전히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한 가운데, 조립식 건설, 속도전 등이 그 방법론으로 제기되고 부분적으로 실용적 요소들이 강조되었다. 민족적 양식을 통해 ‘스탈린 양식’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소간 드러났다.

1960년 북한은 만주과의 권력 토대가 안정되었으며 ‘인민경제 발전 제1차 5개년계획’을 조기 완수했다. 평양시 전후 복구계획도 상당부분 성과를 보인 결과 1961년 조선로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평양시는 “아름답고 웅장한 현대적 도시”가 되었다고 총화된다.<sup>65)</sup>

## 2)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평양 도시미화의 한계 (1961~1970년)

1961년은 북한 내의 권력투쟁이 진정되고 자립적 경제노선에 따른 경영 방법이 확립되며, 평양 도시미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그 담론도 감소하는 시기이다. 같은 해 개최되어 ‘승리자의 대회’로 명명된 제4차 당대회에서는 ‘반종파투쟁’과 사회주의 개조가 종결되었다고 선포되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표면화되었고 공업국가를 향한 비전과 노선, 방법이 제시되었다.<sup>66)</sup> 북한 건축사에서 1960년대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로 기록된다.<sup>67)</sup>

---

65) 돌베개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185쪽.

66)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80~81쪽.

67) 리화선, 『조선건축사』 2.

또한 제1차 7개년계획(1961~67년)부터 평양시의 복구에 관한 과업이 사라진 대신 난방 문제가 언급되는 등 수도 건설이 더 이상 국가경제계획의 주요 과제는 아니게 되었다.<sup>68)</sup> 이러한 변화는 평양시 건설 역량에도 영향을 미쳐 1960년대 초반 도시미화 담론의 감소로 이어진다.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해 평양시 도시미화도 절정에 달했지만, 1958년 이후 『로동신문』의 관련 기사는 제4차 당대회를 준비하던 1960년을 제외하고는 196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그림 3). 하지만 이후 또 한차례의 권력 숙청사건(갑산과 사건)과 정권의 통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해 1970년까지 평양 도시미화 담론은 등락을 거듭한다.

1964년에는 평양시 ‘10대 과업’이 제시되어 도시미화 담론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10대 과업이 제시된 배경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1961년 남한 군사정변과 1960년대 초반 중·소 분쟁에 당면하여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한 것이었다.<sup>69)</sup> 김일성은 평양의 미화는 남한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으로 ‘키다리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1차 7개년계획 기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양시의 부문별(건설과 공업, 농업) 10대 과업을 제시한다.<sup>70)</sup> 그중 건설부문 10대 과업은 대다수가 도시미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평양 지하철 공사와 주요 기관(김일성종합대학 1호교사, 인민군회관 등) 건축, 도로포장, 주택구역 미화, 유원지와 풍치립 조성 등이 그 내용이다. 『로동신문』에도

---

68) 돌베개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314쪽.

69)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54~63쪽 참고.

70) 김일성, “평양시의 10대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1964년 6월 23일),” 『김일성저작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43~349쪽.

10대 과업 관련해서 평양 도시미화 기사들이 다수 게재된다.<sup>71)</sup>

이 당시 도시미화 담론은 정치수사적 요소(‘아름다움’, ‘옹장함’)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후 2년간 도시미화 담론이 감소하다가 1967년 급격히 증가한다(〈그림 10〉). 그 원인은 북한의 권력이 더욱 집중화된 1967년의 ‘갑산과 사건’과 평양의 대홍수 피해 때문이다. 갑산과 사건은 중·소분쟁 속에서 주체사상을 공식화하고<sup>72)</sup> 개인숭배 캠페인이 고조되는 가운데 갑산과 세력이 실학사상을 전파하는 등 유일체제 확립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967년 5월 전원회의에서 이들을 철직한 사건이다.<sup>73)</sup> 갑산과 세력은 8월 종파사건 당시 만주과의 주도권을 인정했었는데 이들과의 숙청함으로써 북한은 정치사회적으로 김일성을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갑산과 사건 이후 김일성은 갑산과 세력과 평양시당위원회의 건설 사업을 비판하며 평양 도시미화를 역설했다. 김일성은 불과 두 달 후 평양시 당·행정·경제기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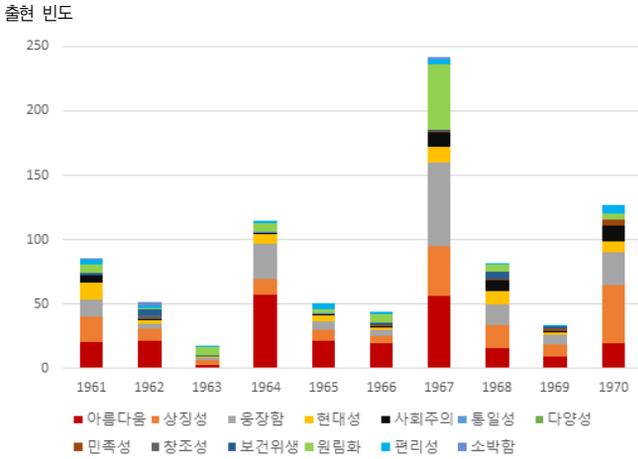
평양시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폭로비판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 있지 않고 당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합니다.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의 사상상태가 이렇다 보니 그들은 내가 과업을 주면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였지만 진심으로 받아 물지 않았습시다.<sup>74)</sup>

71) 『로동신문』, 1964년 9월 13일; 1964년 9월 5일 등.

72) 고유환, “통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93~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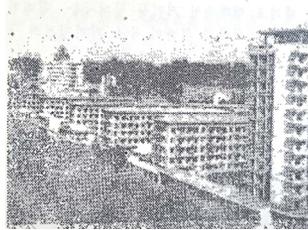
73)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300~316쪽.

<그림 10> 평양 도시미화 담론의 범주별 현황(1961~70년)



자료: 『로동신문』, 각 호.

<그림 11> 모란봉 거리 경관



자료: 리화선, 『조선건축사』 2, 197쪽.

이러한 비판과 동시에 그는 평양지하철 건설이 지체되고 주택건설과 도로포장 등 도시 건설 및 미화사업이 전반적으로 미진함을 지적했다. 이듬해 1월 당과 내각, 평양시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는 평양시

74) 김일성, “평양시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올데 대하여(1968년 5월 20일),” 『김일성 전집』 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210~212쪽.

<그림 12> '보통벌'(현재 보통강구역 일대)의 경관



자료: 『로동신문』, 1964년 8월 15일.

민 중 “정치적으로 불순한 자들”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해야 한다면서 건재품을 주택 보수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sup>75)</sup>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들은 당시의 도시미화 담론에서 정확히 반영되었다. 1967년 폭증한 관련 기사들도 5월 당 전원회의 결과가 재생되며 정치 수사적 담론이 매우 강조된다.

한편 1967년 기록적인 평양의 대홍수가 발생해 『로동신문』 기사 중 ‘원림화’와 ‘보건위생’ 관련 내용이 증가한다.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평양의 강수량이 기록된 대홍수로 평양시의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었고,<sup>76)</sup> 당시 평양시 도시미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원림화도 자주 강조되었다. 그해 10월 평양시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나무 심기와 원림화에 관한 김일성의 교시가 반복되며 대대적으로 선전된다.<sup>77)</sup> 유일지

75) 김일성, “평양시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68년 1월 8일),” 『김일성전집 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4-5쪽, 29쪽.

76) 1967년 8월 25~29일 동안의 평양에 472mm의 강수량이 기록되어 2007년 대홍수 전까지 관측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통일부, “북한 수해 얼마나 심각 하길래……”(2007년 8월 1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www.korea.kr)(검색일: 2021년 4월 20일).

배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기록적인 대홍수로 인한 수도의 혹독한 피해는 김일성 정권에게 부정적인 요인이었고 통치력 강화를 위해서도 상하수도 등 하부시설의 빠른 복구와 원립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 이전에 강조되었던 도시미화 요소 중 민족성과 일부 실용적 요소들(편리성, 소박함 등)은 1950년대보다 비교적 덜 언급되었다. ‘평양속도’는 196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속도전식 건설을 독려했다.

주택 건축양식과 설계의 측면에서는 ‘스탈린풍’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대체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부터 유럽 고전주의 색채는 미미해지고 보다 단조로운 주택 외관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그림 11〉, 〈그림 12〉). 또한 북한은 모란봉거리, 봉화거리, 붉은거리 등 가로변을 따라 일렬로 배치하던 거리형성 방식을 바꿔서 ‘들쭉날쭉’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건물들을 배합함으로써 거리 경관을 다채롭게 꾸몄고 모든 주택이 표준설계화되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sup>78)</sup> 하지만 도시설계와 건축양식에서 독창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건물의 배치와 높이에서 다양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평양시 경관의 중심요소인 주택양식은 차별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스탈린풍을 모방하고 그것으로부터 퇴보하거나 보다 단순화된 양상도 발견된다.

결국 담론은 넘쳐났지만 그에 비해 실제 도시미화의 결과는 미학적, 실용적 차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정치수사적 내용으로 도시미화를 통치 정당성 확보에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즉

---

77) 『로동신문』, 1967년 10월 15일, 1967년 11월 11일.

78) 리화선, 『조선건축사』 2, 196쪽, 211~214쪽.

평양 도시미화 담론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기여했으며 중요한 도시계획적 통치술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의 등장과 전개는 주요 권력투쟁 사건과 사회경제적 부침과 맥을 같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시미화 담론의 내용은 주요 이슈들이 발생한 후 담론의 양태(각 요소들의 구성 비중) 변화를 통해 파악 가능하며, 이는 정권의 의도와 통치 전략을 드러낸다.

전후 재건 시기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스탈린대로, 모택동거리 등이 평양의 최종심부로 미화되었고, 그러한 명칭과 경관은 1950년대에 높은 위상을 가졌다. 김일성 정권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로운 건축양식을 독려하기보다는 정치수사적 도시미화를 강조하고 이데올로기, '평양속도' 등을 강조하는 권력지향적 의도와 실천양상을 보여 주었다. 특히 8월 종파사건과 갑산과 숙청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평양 도시미화 담론은 주체적 요소(민족성과 창조성)를 다소 강조하기도 했지만, 1950년대의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평양역 등 그 성과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주택양식은 '스탈린풍'으로부터 퇴보 혹은 단순화된 측면도 있다. 정치 수사적 도시미화 요소는 전후 복구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1950~60년대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인민들은 평양시 도시미화와 도시미화 담론에 의해

도시 경관은 아름다워야 하고 이데올로기적 미학을 따라야 한다고 인지하고 강요받게 되었다.<sup>79)</sup> 도시미화 담론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민들을 위한 수령의 교시를 따르는 미학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가령 ‘참다운 미’는 구라파에서 배운 고전주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교시를 연구하는 도시설계자들의 노력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80)</sup> 이처럼 미학적 가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유한 평양의 도시미화는 재건과 평양속도의 스펙터클을 통해 인민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었다.<sup>81)</sup>

한편 김일성체제의 통치 관련 주요 이슈(대외관계 이슈, 평양 대홍수 등) 속에서 평양 도시미화 담론은 등락을 거듭했는데, 정치 수사적 요소 외에 다른 요소들은 일정 시기에만 강조되는 것에 그쳤다. 가령 1950년대 말에는 그동안의 건설 주택실적 부진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실용적 요소(편리성과 소박함)가 부분적으로 강조되었고, 1967년 대홍수 후에는 보건위생과 원림화가 다소 강조되었다. 이러한 일부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구의 근대 도시미화운동의 혁신적 요소는 대부분 사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평양시의 도시미화 담론은 정치수사적 요소들이 가장 강조되었고 점차 주체적 요소가 강조되는 가운데, 기존 사회주의적 요소와 환경개선 및 실용적 요소는 시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언급된 수준에 그쳤다.

79) 이러한 논리가 푸코가 의도하는 일종의 ‘담론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권력에 의한 지식과 지식체계의 형성을 담론 효과 속에서 찾고자 한다.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53~54쪽 참고.

80) 이러한 묘사는 최학수, 『평양시간』(평양: 문예출판사, 1976), 157~158쪽에 잘 드러난다.

81) 김성경, “평양 도시 건설 스펙터클에 관한 소고”.

따라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유지와 확보를 위해 평양의 도시미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평양시 경관의 매력을 높이거나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주로 담론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담론 연구는 북한 방문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현장 연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등장하는 김정일 후계와 관련된 문제는 지면의 한계상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접수: 7월 6일 / 수정: 8월 5일 / 채택: 8월 9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 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각 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_\_\_\_\_, 『김일성진집』, 각 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돌베개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리화선, 『조선건축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박용운, 『번영의 길』(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최학수, 『평양시간』(평양: 문예출판사, 1976).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 2) 논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_\_\_\_\_,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한 법령,”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 3) 신문

- 『로동신문』, 각 호.

#### 4) 기타

-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9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4).
- 기어즈, 클리퍼드(Clifford Geertz), 『극장국가 느라가』, 김용진 옮김(서울: 눌민, 2017).
- 남영호, 『변방에서 문화로: 소련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성격』(서울: 라움, 2017).
- 박진빈, 『백색국가 건설사』(서울: 엘피, 2006).
- 베버, 막스, 『경제와 사회』 1, 박성환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 스미스, 필립(Phillip Smith),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서울: 이학사, 2008).
- 스콧, 제임스 C.(James C. Scott),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0).
- 이왕기, 『북한 건축: 또 하나의 우리 모습』(서울: 서울포럼, 2000).
-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서울: 효형출판, 2012).
- 전상인·김미영·조은희, “국가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도시계획』, 제50권 1호(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 페어클롭, 노먼(Norman Fairclough), 『담론과 사회변화』, 김지홍 옮김(서울: 경진출판, 2015).
- 코스토프, 스피로(Spiro Kostof),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양윤재 옮김(서울: 공간사, 2009).
-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서울: 민음사, 2004).
- \_\_\_\_\_, 『성의 역사 1: 얽의 의지』, 이규현 옮김(서울: 나남출판, 2004).
-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엮음, 『문학비평용어사전』(서울: 국학자료원, 2006).

### 2) 논문

- 고유환, “통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엮음, 『북한 정치의 이해』(서울: 을유출판사, 2001).

- 김성경, “평양 도시 건설 스펙터클에 관한 소고,” 『개념과 소통』, 제24호(2004).
- 김철수, “절대주의 바로크의 도시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위임, 『서양도시계획사』(서울: 보성각, 2004).
-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홍순, “사회주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국토계획』제42권 제6호(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2007).
- 박동민, “건축가 김정희와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 신화와 역사,” 『건축역사연구』, 제27권 2호(2018).
- 안진희, “『로동신문』현지도 사진을 통한 북한 경관의 시각체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일영, “김정은 시대의 국토건설전략에 관한 연구: ‘도시미화’사업과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통일부, 『신진연구 논문집: 2015 북한 및 통일관련』(서울: 통일부, 2015).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 북한대학원 위임,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4).
- 홍민,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정치비평』, 10권(2003).
- \_\_\_\_\_,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서울: 통일연구원, 2017).

### 3) 기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www.korea.kr](http://www.korea.kr).

북한지역정보넷 웹사이트, [www.cybernk.net](http://www.cybernk.net).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Creswell, J. W.,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Boston: Person Education, 2005).

Hall, Peter.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ince 1880*(WS: Wiley-Blackwell, 2014).

Wilson, William H., *The City Beautiful Movement*(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2) 논문

- Cavalcanti, Maria De B U., "Urban Reconstruction and Autocratic Regimes- Ceausescu's Bucharest in its historic context," *Planning Perspective*, 12(1997).
- French, R. A. and F. E. Hamilton, "Is There Socialist City?," *The Socialist City: Spatial Structure and Urban Policy*(Chicester: JOHN WILEY & SONS, 1979).
- Lang, Jon, "Learning from Twentieth Century Urban Design Paradigms," Freestone, Robert(ed.), *Urban Planning in a Changing World*(NY: Routledge, 2000).
- May, Ruth, "Planned city Stalinstadt a manifesto of the early German Democratic Republic," *Planning Perspective*, Vol.18(2003).

#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Power Relations in North Korea through the Discourses of City Beautification of Pyongyang: Establishment of Kim Il Sung's Monolithic Rule between 1953 and 1970

Lee, Jong Kyum (Seoul National University) ·

Jung, Hyun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eejung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draws on the discourses of city beautification in Pyongyang as an analytical lens to understand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aspects in establishing the Kim Il Sung regime. The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ity beautification in Pyongyang and analyzes how it is related to securing and strengthening the authoritarian power of Kim's regime. I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of the past, the business of urban beautification worked closely with monopolistic power. Soviet city beautification greatly influenced other socialist cities. Pyongyang, a late participant, was not an exception. Although Kim Il Sung produced nationalist discourses in which

creative North Korean styles and ethnic identities were emphasized, his political rhetoric was rarely achieved in reconstructing Pyongyang after the Korean war. Instead, a simplified version of Stalinesque was reproduced in building the heart of Pyongyang's landscape, emphasizing ide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magnificence, splendor, and aesthetics, which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Kim's dictatorship. While the positive effects of modern urban beautification movements such as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were minimal in Pyongyang under the Kim Il Sung regime, it was mainly utilized as a mechanism to cope with power struggles and problems of governing. The paper examines keywords from documents (such as Rodong Sinmun and Kim Il Sung's speeches) that deliver the discourses of city beautification during the early Kim Il Sung era, and traces the changes in their composition between 1953 and 1970, indicating the way the regime utilized the particular aspects of urban beautification drives as a part of its governmentality.

Keywords: city beautification, power, governmentality, discourse, socialist city, North Korea, Pyongyang